

4월 11일!

종로의 얼굴을 바꿉시다
종로의 명예를 되찾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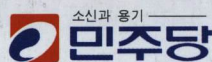
鍾路區行政區域圖



노무현이 걸어온 길

- 46년생(49세)
- 부산상고 졸업·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대전 지방법원 판사
-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 민주쟁취 부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87년 6월항쟁)
- 13대 국회의원
-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위원 (청문회)
- 민주당 기획조정실장·대변인
- 민주당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14대 대통령 선거)
- 민주당 최고위원, 부총재
- (현)사단법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이사장
- (현)민주당 종로지구당 위원장

3 노무현



선거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47 보신빌딩 501호 (종각 맞은 편 제일은행 옆)
전화 · 737-2772 / FAX · 723-8370 Hitel · Go mass / 천리안 · Go mass / Internet · http://sol.nuri.net/~myno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 제작:민주당 노무현 인쇄:인팩트(중구 쌍림동 151-9 / 278-1658)

종로가 바뀌면
한국정치가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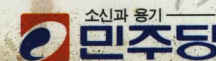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진실한 사람

노무현



43415



노무현은 올바른 정치의 이정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정표 하나 공부하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전 국회는 욕설과 고함의 난무하는 난장판 국회였습니다. 그러다 13대 국회에서부터 점차 달라졌습니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노무현, 이철, 박석무 등이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국민들이 지지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14대 국회부터는 공부하는 국회로 변했습니다. 노무현은 단지 청문회 스타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국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정표들 소신있는 결단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3당합당이 호남만을 고립시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기에 민자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따랐으면 지금쯤 잘나가는 정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았습니다. 또 어렵게 야당을 통합해 6.27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욕을 위해 야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무현은 옳지 않은 길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표 셋 합리적이고 정정당당한 민주주의의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93년 3월, 6천명의 대의원들이 직선으로 치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무현은 최연소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부산시장 선거 당시, 지역감정의 그 엄청난 태풍앞에서도 무려 37%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일을 노무현은 두려움 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을 통해 정치풍토를 바꿔나가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정표 넷 탄탄한 정치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노무현은 제1야당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최연소 최고위원, 부총재를 거치며 꾸준히 경력과 관록을 쌓아 왔고 또 여러번에 걸쳐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해 온 힘이 있습니다. 노무현은 정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 온 국민을 통쾌하게 만든 88년 5공비리 청문회

21세기를 준비하는 정치인입니다. 2002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정표 다섯 한국정치의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장이 바뀌면 미리 준비해 온 200여명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함께 뉴욕시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노무현은 우리나라의 정권교체 방법도 여당에 빌붙거나 지역감정의 대결이 아닌 정정당당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이미 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지난 6.27 선거에서 전국에 24명의 시장·군수, 90여명의 시의원, 도의원 및 250여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습니다. 2000년대의 우리 정치는 특정지역의 국회의원 몇십명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쌓은 행정경험과 훈련받은 정치인들의 힘을 모아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역발전 타령입니까? 더이상 유권자를 속이려 해서는 안됩니다.



가다가 지나가셨으니 상가 문을 열어도 좋다 오버!



국민회관 하나 없어서...

소방차가 들어갈수 있어야 불은 끈데 말든지 할거아냐?

택아소 장애인 시설 부녀자 취업센터라도 있었으면...

■ 지금껏 속아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농촌에서는 여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여당을 찍어야 지역발전한다는 거짓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을 보십시오. 발전했습니까? 몰락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종로도 지난 16년간 속아왔습니다.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표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발전 공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이상 속지 마시다. 이젠 강원도마저 여당의 논리에 속지 않고 있습니다.

■ 이제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종로에 와서보니 문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해도 너무했다 싶습니다. 종로의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유권자를 속이는 동안 노무현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자치, 이제 시작이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들과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신의 선거용 동책썬으로 생각해서 들러리로 여기거나 지방자치에서 한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노무현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를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 돈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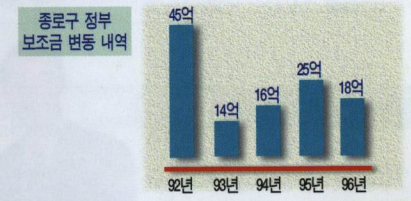
의정보고서 한 번 만들어 집집마다 발송하는데 1억이 듭니다. 그것을 2, 3번 발송했으니 최소 2, 3억은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가게마다 돌린 벽시계며, 지역구관리, 경조사비, 전화홍보비 등으로 1년에 수억원씩 쓴다니 웬만한 서민들 집 몇 채 값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는 재벌처럼 돈을 잘버는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돈을 아낄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장기적으로 지구당을 없애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돈 안쓰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이 할 일, 노무현만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종로발전을 위해 정부를 움직이는 일,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동네에서는 큰소리 치지만 청와대의 눈치 보는 힘없는 여당 정치인이나 정치권내에서 소신없는 정치인이라고 인식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둘이나 있으면서 종로에 가져오는 정부보조금은 형편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면서 지역발전 시킨다는 거짓말! 이젠 그만합시다.



당당한 논리, 소신과 배짱으로 청와대가 어려워 하는 사람. 정부가 두려워 하는 국회의원이라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지만 당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무현 뿐입니다.

“
청와대가 어려워 하는 사람
행정부가 두려워 하는 사람
노무현 뿐입니다
”



노무현은 왜 종로에 나섰는가?

종로는 나라의 중심입니다

종로는 그냥 종로가 아닙니다. 600년 동안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종교와 시민운동의 본산으로 한국의 양심이었습니다. 종로는 어려운 역사의 고비마다 한국정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종로는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박순천 여사, 유진오 총재, 이민우 총재 등 정통야당의 거목들을 탄생시켜 나라의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종로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자부심이 있는 정치1번지입니다.

종로가 바뀌면 한국정치가 바뀝니다

이제 정치1번지, 종로의 명예를 되찾읍시다

지난 16년 종로의 명예, 자부심은 실종되었습니다. 정통야당의 거목을 탄생시켜 정치1번지라 불리던 종로에 지금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있습니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노무현은 종로에서 진짜야당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들보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종로의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종로의 자랑스런 명예를 되찾읍시다.

종로가 일어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민주당 희망정치의 주역들, 박계동, 노무현, 이철

**누가 진짜 야당후보입니까?
누가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종로에 노무현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종로의 국회의원은

깨끗해야 합니다

7, 80년대는 독재와 부정부패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뇌물주고 특혜받아 치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신화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결과가 수천억원의 비자금, 법정에 선 대통령들과 재벌총수 그리고 성수대교의 붕괴입니다. 결국 국민을 우롱해서 치부한 결과입니다. 그 시대에 대통령에게 역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모은 재벌회사 사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가 깨끗해 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와 돈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16년간 권세를 누리다가 추락하여 이당, 저당을 전전했고 선거때가 되자 어느 정당으로 나가서, 어느 지역출신 사람들의 물표를 받을까만 생각하는 무소신 정치인. 경제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경제를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3김청산 운운하다가 이제 와서는 민족의 지도자라 이야기 하며 말을 바꾸는 정치인. '소신과 의리', 정치인 제일의 덕목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는 사람. 남이 한 일을 자기가 했다는 사람. 되지도 않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 거짓말 정치인.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자랐다고 다 서민의 편은 아닙니다. 또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서 웃으며 악수한다고 서민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 온 사람. 삶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어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장래를 기대할 만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뽑아주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낡은 인물이 아니라 이제 쑥쑥 커나가는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노무현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국민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